

The Gospel of Mark

Sermon 17: Sermon Notes

Title: "Wind and wave"

Scripture: Mark 4:35-41

Date preached: December 18th 2022

Scripture: Mark 4:35-41

35 On the same day, when evening had come, He said to them,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36 Now when they had left the multitude, they took Him along in the boat as He was. And other little boats were also with Him. 37 And a great windstorm arose, and the waves beat into the boat, so that it was already filling. 38 But He was in the stern, asleep on a pillow. And they a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39 Then He arose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Peace, be still!" And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40 But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o fearful?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41 And they feared exceedingly, and said to one another, "Who can this be,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35 그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남겨 두고 예수님이 타신 배로 함께 떠났고 다른 배들도 따라 갔다. 37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덮쳐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38 그러나 예수님은 배의 뒷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하십니까?" 하고 소리쳤다. 39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멎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40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s review what we studied last week.

Last time we saw how the Lord Jesus altered His style of preaching. In the early days of His public ministry He taught in a plain and straightforward way. However as the hostility towards Him grew He began to teach using the form of illustrative stories or accounts known as parables. We looked at three of these parables in our last study.

The parables we looked at were; the light under a basket, the growing seed and the mustard seed.

All of Jesus' parables teach us something important about God's Kingdom. Therefore it is worth taking the time and effort to study, pray over and seek the Holy Spirit's help in understanding what Jesus is telling us. Through the guidance and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we can learn many valuable things about how God works and the role He want us to play in His kingdom. Let's briefly look at each of the parables in turn.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 주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이 설교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분의 공생애 초기에 그분은 명백하고 직설적인 방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적대감이 커짐에 따라 그분은 예사적인 이야기나 비유로 알려진 설명의 형태를 사용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연구에서 이러한 비유 중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구니 아래의 빛, 자라는 씨앗과 겨자씨.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영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역할에 대해 많은 귀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비유를 차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The light under the basket

In Jesus day houses had very small windows. The interior as a result was often dark and gloomy. Therefore people relied upon small clay lamps fuelled by oil. These lamps would be placed on shelves to provide illumination to the house. So what's this parable really about?

Often you will hear people say that this parable is teaching us about our role in the Kingdom. That we are to be the lights that shine out the truth of the gospel. This is true, and is one of the applications we can take from this parable, but there is more to it than that.

Jesus here was actually informing His followers that He was really here to bring truth and illumination. They were puzzled by His use of parables. Parables to them seemed confusing. Why not teach people in a plain, easy to understand way. Jesus is telling them that soon all things will be revealed. Jesus came not to bring darkness and misunderstanding. He came to bring light, and to reveal truth. They must be patient and think deeply on these things. This is because when Jesus has departed they will have the task of sharing the truth with others. The same message holds true today. These first disciples had not had all the truth yet revealed to them. We however have God's full and complete revelation. We are therefore called upon to share that truth with others.

예수님 시대에 집에는 아주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는 종종 어둡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작은 점토 램프에 의존했습니다. 이 램프는 집에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선반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종종 당신은 사람들이 이 비유가 왕국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사실이며 우리가 이 비유에서 취할 수 있는 적용 중 하나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진리와 조명을 가져오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추종자들에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비유 사용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평범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오해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빛을 가져오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진리를 나누는 임무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적용됩니다. 이 첫 제자들은 그들에게 아직 밝혀진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2 The growing seed

The parable of the growing seed asks us to picture a farmer scattering seeds. Once the seeds are sown the farmers job is essentially complete. They may water the seeds, apply pesticides or erect a scareware but that is all they can do. Whether the seeds develop and grow is out of the farmer's hands. It's essentially in God's hands. This same principle applies to growth in God's Kingdom. We are the farmers who are tasked with scattering or sowing the seeds. The seeds represent God's truth. We must then leave the rest up to God. Will the person we have shared the gospel with come to a know and love the Lord Jesus? That's God's business. We have our small part to play and the rest is up to Him.

자라는 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농부를 그려보라고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면 농부의 일은 본질적으로 완료

됩니다. 그들은 씨앗에 물을 주거나 살충제를 바르거나 공포 도구를 세울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그것뿐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성장할지 여부는 농부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성장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거나 파종하는 일을 맡은 농부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작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3 The mustard seed

We know from life that big things often come from small humble beginnings. Long journeys begin with a single step. Huge business empires grow from a single shop. This is in essence what Jesus is teaching us here about the Kingdom. A mustard seed is a very tiny seed. For the farmers in Palestine it was the smallest seed they planted. And yet from this tiny seed a big and useful plant grew.

So Jesus was reminding His hearers that although what they were seeing was not that impressive it was only the beginning. It would one day be something awesome and mighty. From that humble beginning in Galilee picture how Christianity grew. It started with Jesus, His group of twelve disciples and other followers but look at it now. According to Pew research 31% of the world's population or around 2.3 billion people are Christians.

Today we conclude chapter 4. The chapter ends with a miracle. The Lord Jesus calming the storm is the first of a series of four miracles that Mark has grouped together. The miracles are as follows;

1 Calming the storm

2 Healing the demoniac

3 Healing the woman with a flow of blood

4 Raising Jairus' daughter.

The miracles reveal to us Jesus power and mastery over nature, demons, disease, and death. We cannot read them without truly recognising who Jesus is.

Before we do that will you join me in prayer.

35 On the same day, when evening had come, He said to them,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The account we are about to study is recorded in all the synoptic gospels.

우리는 인생에서 큰 일이 종종 작고 겸손한 시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긴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의 상점에서 거대한 바자스 제국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여기서 왕국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는 그들이 뿌린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에서 크고 유용한 식물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언젠가는 굉장하고 강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갈릴래아에서 시작된 겸손한 시작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열두 제자와 다른 추종자들로 이루어진 그분의 그룹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지금 그것을 보십시오. Pew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1% 또는 약 23억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을 마칩니다. 이 장은 기적과 함께 끝납니다. 폭풍을 진정케 하시는 주 예수님은 마가 함께 묶은 일련의 네 가지 기적 중 첫 번째입니다. 기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풍을 진정시키다 2 악마의 치유 3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심 4 아이로의 딸을 키움 기적은 자연 악마 질병 및 죽음에 대한 예수의 능력과 지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35 같은 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쪽으로 건너가

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공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Mark is usually noted for his brevity. He typically tells us things in a much more concise way than Matthew and Luke. However for the account of Jesus calming the storm Mark actually gives us the longest, most detailed account. Why might this be? Well, if you think back to my introduction to Mark's gospel I told you from whom Mark got his information. He received his account from the eyewitness Peter. Peter was in the boat with Jesus. As a man used to being on the Sea of Galilee I'm sure what happened on that night stayed with him forever.

In the ancient world they were not as precise about time as we are today. Today if we were reporting on someone's actions we might say they left at around 6 pm. Here Mark I think deliberately tells us something about when these events took place. Firstly it was on the “same day.” This means the same day that He was teaching the people about the Kingdom through parables. We are also told that is was when evening had come. Mark I think includes these details to help us appreciate the extreme busyness of Jesus. He didn't say to His disciples, let's rest and leave in the morning. He wanted them to use every opportunity they had. The Lord Jesus knew that His time on earth was short and so He wasted none of it.

It's a valuable lesson and one we should note. We are all guilty at times of wasting time. Most of us spend too much time looking at our smart phones and engaged in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I remember a wise professor once telling me about an experiment he conducted at the start of every university year. He would ask his students how well they thought they used their time. Almost all of them said that they used their time sensibly. That not too much was spent in idle or unproductive ways. The professor then got all his students to carefully record how they spent their time over a week. It was a very illuminating experience for the students. When they returned a week later they were all amazed. They hadn't appreciated just how much of their time they did actually waste. It's a criticism that we could never level at the Lord Jesus. He never wasted a second. So we should take note, none of us knows how long we have, so we should use the time we have wisely.

[illegible]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주 예수님을 향할 수 없는 비탄입니다. 그는 단 1 초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Jesus then tells His disciples that they should 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This means they were travelling from west to east. As I have said before the western side of the Sea of Galilee was mostly populated by Jews. Across the sea on the eastern side was where many Gentiles resided. We do not know exactly where Jesus was at this point. But in chapter 5 we are told where they landed.

Then they came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Mark 5:1)

So we know where they were heading.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was located east of the Jordan River and southeast of the Sea of Galilee. The Sea of Galilee is around 13 miles in length and at its widest point about 8 miles wide. For experienced fishermen this would normally be a routine trip. But not on this occasion. Let us read on.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에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5 장에서 우리는 그들이 상륙한 곳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마가복음 5:1)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압니다. 가다라 사람의 나라는 요단 강 동쪽과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약 13 마일이고 가장 넓은 지점의 너비는 약 8 마일입니다. 숙련된 어부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 보시다.

36 Now when they had left the multitude, they took Him along in the boat as He was. And other little boats were also with Him.

So leaving most of the crowd behind Jesus and the disciples climb into a boat. Again Mark includes a significant, and often overlooked detail. He tells us that they took Jesus “as he was.” This probably means that they took Jesus tired and weary “as He was.” They did not wait for food to be brought, or extra clothes to arrive. This all ties in with Mark’s presentation to us of Jesus as the suffering servant. Servants don’t get a time to rest, extra blankets, or nice hot meals. They must be ready to go and serve no matter how they personally feel.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the Lord Jesus when He took on human flesh experienced all the things we do. He felt tired, hungry and exhausted after a long day of preaching and teaching. This is later reinforced by what happens during the journey. Even though it was late in the day people still wanted to be near to Jesus. We are told that a number of other small boats also set off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Mark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include this detail.

Let me take a moment at this point to tell you about a very interesting archaeological find. This find was discovered two miles north of Magdala, on the Sea of Galilee. In 1986 there was a drought and the water level had receded. Two brothers; Moshe and Yuval Lufan found some old looking nails along the shore and contacted the authorities. What they had actually discovered was the remains of a first century fishing boat. It truly was an amazing find. The wood from the boat was carbon 14

tested and gave a date of around 40 AD. The boat because it was in service during Jesus time on earth was nicknamed the “Jesus boat.” Its measurements were as follows. It was 9 meters long, 2.5 meters wide and 1.25 metres high. So it was certainly more substantial than a little row-boat. Was this the kind of boat that Jesus and His disciples boarded that evening? We may never know for sure but its a strong possibility.

Let us see what happens.

그래서 대부분의 군중을 예수와 제자들이 뒤로 두고 배에 올랐습니다. 다시 Mark 는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영접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거나 여분의 옷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가가 예수를 고통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인은 실시간, 여분의 담요 또는 멋진 따뜻한 식사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든 간에 가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경함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설교와 가르침의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에 의해 강화됩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많은 작은 배들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Mark 는 이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유일한 복음서 저자입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매우 흥미로운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견은 갈릴리 바다에서 막달라에서 북쪽으로 2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86 년에 가뭄이 들어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두 형제, Moshe 와 Yuval Lufan 은 해안을 따라 낚아 보이는 못을 발견하고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발견한 것은 1 세기 어선의 잔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배에서 나온 나무는 탄소 14 테스트를 거쳤으며 연대는 서기 40 년경이었습니다. 이 배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수 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측정치는 다음과 같았다. 길이 9 미터, 폭 2.5 미터, 높이 1.25 미터였다. 그래서 그것은 작은 노 젓는 배보다 확실히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였습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강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7 And a great windstorm arose, and the waves beat into the boat, so that it was already filling.

I've spoken before about how sudden and severe the storms can be on the Sea of Galilee. I remember spending a few days in Tiberius and the sea was always calm and placid. However due to the geography of the region violent wind storms can begin without warning. The winds can whip across the sea and create waves as big as 2 metres in height. Waves of this size can easily flood and sink a small boat. The storm here is described by Mark as being a "great" windstorm. The word great is the Greek word "*me gas*." So Mark is I think highlighting to us that this is a more severe and powerful storm than usual. We should remember that several of the disciples were experienced fisherman. No doubt they had encountered bad weather whilst out on the water. But this storm is so severe and the boat is taking on so much water that even they are afraid. What is Jesus doing whilst this storm rages. Let's find out.

Tiberius 에서 며칠을 보냈고 바다는 항상 고요하고 잔잔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형으로 인해 예고 없이 격렬한 폭풍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바다를 가로질러 2 미터 높이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파도는 쉽게 범람하여 작은 배를 가리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폭풍은 마가에 의해 "거대한" 폭풍으로 묘사됩니다. 위대하다는 단어는 헬리어로 "매가"입니다. 그래서 Mark 는 이것이 평소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폭풍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자들 중 몇몇이 노련한 어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물 위에 있는 동안

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다는 유용한 알림입니다. 그는 극심한 피로를 느낍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두렵고 초조했고 이것이 그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위기에서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까? 그는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나 긴급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기여하고 도움을 것을 기대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교사가 청소를 도와야 했습니다. 더럽고 불쾌한 일이었지만 일을 기피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선택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모두 멸망당하는 것을 그분이 돌보지 않으시느냐고 묻습니다. 좋은 질문인가요? 예수께서 폭풍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먼저 그분은 그들이 저편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죽으실지 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배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를 아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그분은 제자들이 이 폭풍에 대해 걱정했던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9 Then He arose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Peace, be still!" And the wind ceased and there was a great calm.

The disciples had rebuked Jesus for in their eyes not caring that they were about to die. Now Jesus is going to do some rebuking of His own. Firstly He rebukes the storm. One commentator I read said that Jesus addressed the storm as one might a child. "Hush now, be quiet." This world is the Lord Jesus Christ's creation. In that sense it is His child, and He has control and mastery over it. Whatever volume or tone Jesus used the elements stopped their raging. From the chaos and noise of the storm came perfect peace. Mark uses the word "great" here for the second time.

From a *megas* storm comes a *megas* calm.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there were other small boats also on the sea during the storm. Their occupants too were also preserved from drowning by God's mercy. From the storm he turns now to rebuke the disciples.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폭풍을 꾸짖으십니다. "이제 쉿 조용히 해" 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그것을 통제하고 지배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음량이나 어조로 사용하든 원소들은 분노를 멈췄습니다. 폭풍의 혼돈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Mark 는 여기에서 두 번째로 "great"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엄청난 폭풍에서 엄청난 고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또한 폭풍우 동안 바다에 다른 작은 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주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비로 악사하지 않도록 보호되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분은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려고 돌아옵니다.

40 But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o fearful?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41 And they feared exceedingly, and said to one another, "Who can this be,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The Lord Jesus is clearly disappointed in His disciples. They had been with now for some time. They had seen Him perform many amazing signs and wonders. They had witnessed His power and seen His goodness. They should have trusted Him and not been concerned or worried. So the Lord Jesus is disheartened that at this moment were they so fearful and lacking in faith. They did have some faith it should be said. They did after all come to Jesus and ask Him to do something. But

their faith was so small. You see they already believed that it was too late. That they were doomed.

How guilty we are at times of a lack of faith. How often are we just like the disciples and think a situation is too far gone to be saved or rescued by God. Let us pray for a strong and resolute faith.

Mark closes his account by again using the Greek word *megas*. In our English translations today they have translated this as “exceedingly.” Mark tells us that the disciples were greatly afraid at what had just happened. So let us pause a moment and think about this. They had been caught in a great storm. A storm so severe that even the experienced fishermen thought they would perish. Now the sea and wind were calm, they were surrounded by a great peace, and yet they were now even more greatly afraid. Why is this? Their question reveals to us what lay behind this fear.

They had been with Jesus for some time. They already knew that He had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to cast out demons, and to heal diseases. But this was something new, this was a new revelation of who Jesus was. I think its right to say that they were comfortable with a friendly, familiar human Jesus. But the supernatural Jesus frightened them. We must remember that Jesus was the God / Man. He was fully man and fully God. In calming the storm He shows them the fullness of His deity. Let me read verses 8 and 9 from Psalm 89.

**O LORD God of hosts,
Who is mighty like You, O LORD?
Your faithfulness also surrounds You.
You rule the raging of the sea;
When its waves rise, You still them.
(Psalm 89:8-9)**

So the disciples now realise that this man in their boat truly was a unique individual. He's not just a man who can do extraordinary things. He is something way beyond that. It also meant that in practical terms they had no reason ever again to be afraid, for their Lord was in constant control of every situation.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what happens when they land in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지금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많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목격했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신봉하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두렵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낙담하셨습니다. 그들은 말해야 할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와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운명을 맞았다는 것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제자들과 같으며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거나 구조되기에는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까? 강하고 단호한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Mark 는 그리스 단어 메가스를 다시 사용하여 계정을 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어 번역에서 그들은 이것을 "exceedingly" 로 번역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밤길 일어난 일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큰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노련한 어부들도 죽는 줄 알았을 정도로 심한 폭풍. 이제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지고 큰 평화가 그들을 둘러싸지만 이제 그들은 더욱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런거야? 그들의 질문은 이 두려움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죄를 사하고 구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것이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계시였습니다. 친근하고 친근한 인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편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자

연적인 예수는 그들을 두렵게 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고 믿는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신성의 충만함을 보여 주십니다. 사편 89 편 8 절과 9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여, 누가 주와 같이 능하니까? 당신의 산실하심도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난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 당신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시 89:8-9)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배에 탄 이 사람이 참으로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비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모든 상황을 자속적으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그들이 가다라 사람의 나라에 상륙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1 God cares

We have a tendency I think to read the accounts of the disciples and wonder, or be surprised at their lack of understanding and at times foolishness. Why, we might wonder given all they had seen were they fearful of the storm. Jesus had told them they were going over. They should have had faith and not been worried. But let us be honest and say that often we are just like those disciples. When we face problems, difficulties or crisis in life what do we say. “Lord, don’t You care?” Just like the disciples in the boat we call out to God as if He is not fully aware of what is happening. How foolish we are. Of course God cares about us. We are His precious children. Think about what He paid to adopt us. So when we have trials in life let us never forget that God really cares. Let us not be fearful and have faith that He know best in every situation.

우리는 제 생각에 제자들의 기록을 읽고 그들의 이해력 부족과 때로는 어리석음에 놀라거나 놀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본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이 폭풍을 두려워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건넌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종 그 제자들과 같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당신은 상민하지 않습니까?" 배에 탄 제자들처럼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 지불하신 금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가장 잘 아신다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2 Don't be fearful

Jesus asks His disciples a most pertinent question. Why He asks them, are you fearful? It's a question that we should ask ourselves.

Recently I read a book about the Covid 19 vaccine. The book was written by an American pastor and researcher who might best be described as an extreme conspiracy theorist. He is someone who distrusts everything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media tell us. He is deeply sceptical of things as I think we all should be. The mess that much of the world is in now is a direct result of people not thinking clearly and allowing themselves to be brainwashed.

I think many of the things he reveals in the book are worthy of our interest and consideration. I have to say that the book's contents terrified me. I was literally left in a cold and fearful sweat. I won't go into details here but the future the book painted for humanity was horrific. It would be very easy for me to read a book like this and become deeply fearful and apprehensive about the future. Maybe these things will happen, maybe they won't. Whatever happens to us we should remember that have

